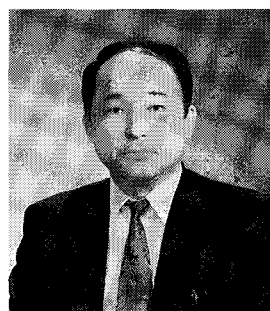




협회로 힘을 모아 개방의 파고를 함께 넘고 세계속의 낙농육우인이 됩시다



이 종 준
본회이사, 중앙낙협장

'93년 12월에 전국의 농민과 양축가들의 거센 항의속에서도 UR협상은 타결이 되었고 '94년 12월에는 국회에서 WTO 비준안을 통과시켰다. 이제 '95년이 되어 우리의 주식인 쌀도 수입이 되고 유제품시장도 개방되며 쇠고기도 더 많은량이 들어올 것이다.

그야말로 낙농육우 산업은 역사 이래 가장 심각한 시련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미 우리의 제2식량으로 자리를 잡은지 오래인 우유와 고기를 우리는 어떻게 지켜낼 것이며 우리는 생업을 어떻게 영위하며 생존할 것인가?

참으로 황량한 겨울별판에 서 있는 것처럼 움추려 들고 막연하기만 하다.

그런데, 최근까지도 소값은 계속 오르고 있고 유업체가 선도금을 지급하면서 원유를 확보하고 있으니 UR협상타결이 별것도 아닌것으로 생각들 하고 있는 것 같다.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것은 UR협상은 '93년도에 타결이 되었지만 그 이행은 '95년도 부터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다.

세계무역의 자유화라는 국제질서의 냉엄한 흐름을 우리가 역행할 수 없는 것인줄 잘 알고 있다. 정부의 UR협상내용의 부실에 대한 책임을 여기서 논하지는 않는다.

다만, 국내관련 법안과 제도들을 강화시켜 수입농산물의 수입창구를 좀더 엄격하게 만들고 국내농산물의 과잉생산시에는 수입이 되지않게 하는 등의 능동적인 대처가 가능하게 하여야 된다는 측면에서 낙농진흥법의 개정등을 주장하였고 식품관련위생 법령이

여러분들은 누군가가 여러분들의 생업을 위해 모든 일들을 대신해 줄 것으로 마냥 믿고 있 습니까?

우리모두 힘을 모읍시다. 협회에 가입합시다. 그런 후에 낙농육우협회가 더 많은 일을 해달 라고, 우리 낙농육우인들의 강력한 대변인이 되고 정부의 입력단체가 되어 달라고 요청합시다. 그래서 개방의 파고를 함께 넘고 전진하 는 세계속의 낙농육우인이 됩시다.

나 검역강화등을 요청하였지만 이것또한 이루어지지 않았고 사료와 축산기자재등의 부가세 영세율 적용과 축산폐수 처리기준 완화내지는 시설개선에 대한 지원 등이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개방화가 아쉽고 불 만인 것이다.

이런 모순된 제도의 개선이나 정책의 개발과 반영을 위해 어느 한 사람의 힘으로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여기에 협회가 필요한 것이다.

우리 국내 낙농육우인 모두의 권익을 위해 정책을 개발하고 합리적인 법제도를 마련하며 축산인에게 발

생될 수 있는 불이익을 사전에 차단하며 정부의 지원을 요청하는 등의 많은 일들이 혼자 힘으로는 불가능하며 협회라는 단체가 있어야만 가능해지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낙농육우인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한국낙농육우협회의 '94년도 활동을 살펴보면

○ UR제협상, 국회비준거부 요청 및 활동추진(2월 1일 대학로 농민대회)

○ 축산관련 허가권 농림수산부 이관 건의

○ 수입개방 대비 검역기준 강화 마련 건의

○ 가축분뇨에 대한 규제 완화와 정부의 지원 확대 요청

○ 낙농육우 산업의 안정적인 발전대책안 마련 제시

○ 자가배합사료의 부가세 철폐 건의

○ 한우협동조합 설립인가 촉구 등등..... 수없이 많은 활동을 해온게 사실이며 경제적으로 열악한 상황과 부족한 인력으로 제몫이상을 감당한 점에 대하여 찬사와 고마움을 함께 느끼지 않을 수 없다. 경제적인 여건이 어렵지만,

○ 낙농육우관련 기술과 정보제공을 좀더 확대하고
○ 전국낙농육우인들 모두를 협회 회원으로 가입시켜 힘을 결집시키고

○ 정책개발에 일선 양축가의 의견이 적극 수렴되며 결과 통지가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홍보에 주력해 달라는 욕심을 내어 보기도 한다.

낙농육우인 여러분!

특히 육우인 여러분!

여러분은 한국낙농육우협회의 가입하고 계십니까?

년간 20,000원의 협회비를 납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누군가가 여러분들의 생업을 위해 모든 일들을 대신해 줄 것으로 마냥 믿고 있습니까?

우리모두 힘을 모읍시다. 협회에 가입합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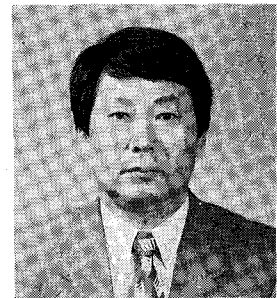
그런 후에 낙농육우협회가 더 많은 일을 해달라고, 우리육우인들의 강력한 대변인이 되고 정부의 압력단체가 되어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래서 개방의 파고를 함께 넘고 전진하는 세계속의 낙농육우인이 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낙농가들의 중지를 모아 우리의 할일을 찾아야 할 때



윤 민 호

본회사사. 지리산낙협장

지난간 3년동안 별로 한 것도 없는데라는 아쉬움이 가슴속에 먼저 와닫는 이유는 무엇일까?

하루가 다르게 빠른 변화를 보이는 사회환경과 외부 정세속에서 우리 자신들은 얼마나 빠르게 적응해 왔을까?

마누라와 자식만 제외하고 모든 것을 다 바꿔보자고 절규하던 어느 기업인의 말처럼. 철저한 인식의 변화와 개혁이 요구되고 있는 시대에 우리 낙농가들은 그동안 얼마나 시대와 환경에 적응할 수 있게끔 변화와 개혁을 추구하여 왔는가?